

# TV미니시리즈의 ‘보철적 기억’과 역사인식의 형성

## -미국 TV시리즈 <콜드 케이스>를 중심으로-

### "Prosthetic Memory" in TV Series & A Sense of History

#### -Focus on <Cold Case>-

이승환

목원대학교 TV영화학부

Seung hwan, Lee(jpk88@mokwon.ac.kr)

#### 요약

<콜드 케이스>는 미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강력반의 이야기를 그리는 미국 TV시리즈이다. 시리즈는 여타의 인기 있는 시리즈들과 달리,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오가며 미국 역사의 소수자, 주류 역사에서 지워진 보통의 범죄 희생자들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유는 시리즈의 목표가 과거의 용기 있는 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하여 현재의 우리들이 미처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리즈는 플래시 백 기법, 영혼의 등장, 시대배경과 주제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대중음악의 사용을 통해 시청자들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고, 간접경험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의 숨은 주인공들을 기억하게 한다. 즉, 기존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한 “보철적 기억”의 개념으로 시리즈 존재의 가치를 입증한다. 우월한 지식과 권력의 남용으로 구성된 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의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했고, 절대 그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리즈 전체의 이야기이다.

■ 중심어 : | <콜드 케이스> | “보철적 기억” | 미국역사 | 플래시 백 |

#### Abstract

What made <Cold Case> stand out among these police procedurals was its focus on the importance of history to understand both the past and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e. Many of the cases involve aspects of history that are not part of mainstream narratives and constitute the unfinished business of America. The flashback sequences throughout the show visually and affectively transport the viewer back to an earlier historical moment. What all the victim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refused to be silent or passive in the face of circumstances they believed were wrong, or they refused to conform to dehumanising and destructive social and cultural expectation. Those promoting these lies have the power to establish their version as the power to establish their version as the “truth” of what happened in context, but viewers are positioned to see the truth as the victims experienced it and to identify with them and against the power abusers.

The Cold Case detectives pursue the ghosts of American history, restoring to our view stories of lives and experiences rendered invisible and unspeakable by dominant forms of knowledge and power. The series invites viewers to empathize with the victim and to develop an ethical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in the future.

■ keyword : | <Cold Case> | Prosthetic Memory | America History | Flash Back |

## I. 대중매체의 역사 재구성

대한민국이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화 문제로 떠들썩하다. 정부는 '좌편향'된 일부 집필진의 왜곡된 역사교육의 시도를 국가의 개입으로 민족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근대'의 역사적 사건과 이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중심이다. 이는 문자 텍스트만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경쟁의 이유는 과거 사건들의 진행에는 반드시 권력과 지식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건의 해석, 즉 역사를 그들의 것으로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이들에 의해 변방으로 밀려나고, 마침내는 역사에서 밀려나고 없어지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본인들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해석의 시선들이 정당하다 주장하며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을 거부한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전선'의 형성은 단순히 정치적인 다툼이 전부는 아니다. 대중매체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혹은 재현이 온당한 역사기록의 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정도로 대중매체의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은 사회의 역사적 구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경우 "사극"이라는 손쉬운 '호명'으로 익숙하게 다가온다. 최근 몇 년간 영조, 사도세자, 정조 3대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영화, TV 드라마, 케이블 채널의 미니시리즈로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매우 비극적인 '친자살해'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만, 2대에 걸친 대통령이 당선된 우리 사회의 정치적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궁중의 시기어린 여성들의 암투에 대한 선정적인 재현이 주를 이루던 시절로부터 권력 앞에서는 부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살가운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권력쟁탈의 골육상쟁으로 변화되는 정치적 해석으로 재현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영화가 역사의 기록으로 그리고 역사에 대한 도전으로 활용 가능한 매체[1]로 취급되는 것처럼 TV 역시도 마찬가지다. 대중매체 즉, 영화나 TV시리즈의 과거사건 혹은 역사재현은 제작되던 시대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 한다[2]. 특

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 곧 "역사"가 될 역사적 사건의 '기억과 경험'은 분명하게 논란의 중심에 놓일 여지가 많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을 경험했고 기억하는 관객들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나 미니시리즈는 논란만큼이나 역사기록물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한다.

본고는 이러한 근대의 사건들의 재현을 통해, 뒤틀리고 왜곡된 기억으로 구성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 TV시리즈의 등장을 기대하며 매우 대중적인 TV 시리즈이면서도, 현대사회의 논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주류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시도한 미국 TV 시리즈 <콜드 케이스 Cold Case>에 에피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TV의 영역이 대중적으로 훨씬 파급력이 있고, 그에 따라 재현의 주제에 대해서도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랑이야기와 음식이야기 그리고 선정성으로 무장한 한류 드라마만으로 산업적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주제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선, II장에서는 <콜드 케이스>의 역사기록물서의 함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랜드버그 Landsberg, 맥파든 McFadden의 주장과 지적을 통해 확인하고 III장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콜드 케이스>가 미국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잊혀진 목소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탐색해 본다. IV장에서는 시리즈를 통해 사용되는 공식 formular, 관습 convention을 확인하고 그 의미들을 분석해본다. V장에서는 <콜드 케이스> 시리즈 중, 한 에피소드를 선정, 앞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들의 적용이 타당한지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다.

## II. 역사적 기억매체로서의 <콜드 케이스>

### 1. <콜드 케이스>

미니 시리즈 <콜드 케이스 Cold Case>는 2003년 CBS를 통해 런칭 되자마자 2003 ~ 2004시즌의 가장 인기 있는 미니 시리즈였다[3]. 시리즈는 미제 살인 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사건을 재수사하는 필라델피아의 강력반 형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흑, 백, 히스패닉의 다양한 인종과 세대로 구성된 형사들은 각자의 다양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다. 팀을 이끄는 존 스틸먼 소장보(존 핀 John Finn)는 베트남 참전 군인 출신의 백인이다. 그와 흑인 선임 형사인 월 제프리스(툼 배리 Thom Barry)는 1970년대 초반, 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린 동료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 릴리 러쉬 (캐서린 모리스 Kathryn Morris)는 팀의 지휘자도, 선임도 아니지만 팀의 지적이고 영향력있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 그녀의 수사능력과 희생자에 대한 연민은 각각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백인이며 필라델피아 강력반의 첫 번째 여성 형사인 러쉬는 남성들이 대부분인 강력반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바 있고, 이는 여성 희생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가난한 성장배경, 사회복지 시설에서 알콜중독인 엄마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과의 생활, 이처럼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험 등은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하는 경험이다. 러쉬의 파트너인 스코티 발렌스 (대니 피오 Danny Pino)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출신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고 정신분열증을 앓던 여자친구, 소아성애자에게 학대당한 남동생, 강간 피해자인 엄마 등등의 경험은 많은 사건들에 대한 그의 시각을 형성해 주었다. 닉 베라 (제레미 래쉬포드 Jeremy Ratchford)는 러시아 이민자의 손자이고 매우 숙련된 심문 전문가이다[4].

시리즈는 TV 시리즈의 제왕 제리 브룩하이머 Jerry Bruckheimer의 제작물답게 여타의 브룩하이머 사단의 인기 있는 형사물 TV시리즈의 관습 convention을 준용했지만, <CSI> 나 <실종사건수사반 Without a Trace>과 같은 히트 형사물 시리즈와는 분명 차별화된 모습을 가진다. <콜드 케이스>는 다른 시리즈들과는 달리 등장 경관들이 과거와 현재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

하는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주연인 캐서린 모리스 Kathryn Morris는 “이러한 경향은 누가 이런 것을 저질렀는가 보다는 ‘왜’ 그랬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5]. 마가렛 맥파든 Margaret McFaden은 <콜드 케이스>의 공식 formula이 우리들의 관심을 과거와 현재의 철학적인 연결점, 그리고 종종 정치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러기위해 이 시리즈는 형사들이 과거 사건이 발생한 시대로 돌아가서 전형적인 부당한 차별과 처사에 의한 사건의 희생자들과 시청자들의 감정적 유대관계를 효과적으로 재현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재현의 결과 시청자들은 부당한 시절을 경험하고 숨겨진 차별을 밝히려는 좀 더 올바른 정의로 구성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새로운 시선의 등장은 역사, 정치 그리고 개인 주제와 관련한 현대 이론들의 몰락, 즉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 비평가들의 시대가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의 이론과 실천에 의해 무력화됨으로써 비롯된 정치적 무력감이 팽배해지는 순간에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역사에 대한 현대적 개념 - 현대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명백하게 권리, 기회 그리고 자유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믿음 - 을 소멸시켰다. 정치적 희망과 낙관 그리고 좌파의 정치적 행동 또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선언들을 훼손 시켰고, 그 반작용으로 이러한 시리즈 등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6]. 다니엘 마커스는 Daniel Marcus 역시 단순화되고 미화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TV 드라마들과는 달리 <콜드 케이스>는 차별과 권력 남용이 통용되는 실제적인 사회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파괴되어 가는 모습들을 논쟁적으로 묘사한다고 말한다[7]. 웬디 브라운 Wendy Brown은 지금 “우리시대”를 “깊은 정치적 혼란의 시대”로 규정하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전향적 이해를 위한 정치적 대안의 부재”를 말한다[8].

<콜드 케이스>는 역사가 현재진행형이자 부당함과 이에 대항하는 정치적 도전의 선택적 기로에 놓인 것임

을 보여준다. 앨리슨 랜드버그 Alison Landsberg는 영화나 TV와 같은 매스 미디어들이 소위 “보철적 기억 prosthetic memories” 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을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인지하게 만드는 역사 재현의 강력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며 “보철적 기억”은 깊은 감정의 형성을 통해 시청자들의 주관성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청자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형성과 사회에서의 인간간 타자적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랜드버그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 및 관점과 연관된 “보철적 기억들”의 대중문화적 재현은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책임감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감정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차이들을 초월하고 현재의 정치적 협력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한 개인의 경험적 산물이 아니라, 기억의 테크놀러지 즉, 대중매체의 시청을 통한 간접 경험이 기억으로 이식된다는 것이다. 이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인종, 계급의 사람들이 대중문화를 통해 동질적 기억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9].

## 2. 역사와 “보철적 기억”

<콜드 케이스>는 미국 현대역사의 다양한 시대와 사건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보철적 기억’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준만한 역사적 이야기를 종종 다루고 과거 인물들로의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시리즈의 일부 스토리는 실제 범죄 케이스를, 일부는 실제 사건이나 실제 인물의 스토리를 각색한 것으로 특정 역사적 사건들 또는 사람들에 대한 것 직접적 묘사보다는 일상생활 속의 특정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대해 간접적인 역사 버전을 재현한다[10]. 이러한 포맷은 그러한 감정적 경험들을 가지지 못한 시청자들에게도 경험의 근사치를 제공하고 경험자들의 과거 경험과의 연대감을 유도한다. 시리즈의 스토리를 종합해보면 미국역사의 주류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람들의 역사를 알

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복잡한 관계성,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과거에 대한 인종적 부채감 등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콜드 케이스>는 역사 재현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시선 그리고 그 역사로부터 수반되는 현재와 미래의 행동들에 대해 말한다[11].

<콜드 케이스>는 20세기 미국의 가장 힘없는 시민들의 역사를 다룬다. 우선, 시리즈의 등장 캐릭터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들은 미해결 범죄의 해결을 전제로, 그 사건이 벌어진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전제되어 구성된다. 시리즈의 주인공들 거의 대부분은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여성, 흑인, 노동자들, 이민자들, 베트남 참전군인들, 동성애자 등 이다. 형사들의 증인과의 인터뷰나 심문의 재현은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을 과거로 이끌고, 등장 캐릭터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 억압과 지배 이데올로기 개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희생자들과 그들을 억압하는 대립자들의 경쟁 모습을 묘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방법으로, 가장 고통이 큰 사회적 약자들의 시점으로 묘사하고, 또한 암묵적으로 범죄자들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힘을 시각화하여 어떻게 사회적 변화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구조화되었는지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방식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거나 지배 개념이나 권력의 서열구조를 거부하는 희생자들이 자주 등장시키고 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단죄되는 것을 재현한다.

다음으로 <콜드 케이스>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성, 더 확대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을 재현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과거는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시청각적 묘사로 표현된다. 시리즈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가 현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거는 고정되어 알려지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쓰여 질 수 있음을 은연중이지만 논쟁적으로 보여준다. 형사들의 수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과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억압되어진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리즈는 과거의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을 하고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내러티브로 구성된다. 특정 캐릭터들의 액션은 현재를 구성하는데 줄 도움을 제한한다. 시리즈 내러티브 내에 은연중 포함된 개념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법을 배운 현재의 시청자들이 과거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미래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게 도와준다. 시리즈는 우리가 과거의 특정 사람들에게 발생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다시 쓰느냐에 따라 용감한 희생자들의 인생을 새롭게 쓸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재해석을 위한 목적론적 아이디어가 아니다. 역사란 과거나 현재 모두 거대한 구조의 힘보다는 개인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콜드 케이스>는 미국역사에서의 인종적 부채감과 현재 미국사회의 구성 방식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논쟁적으로 다가간다[12]1. 이 아이디어는 매 에피소드의 마지막 몽타쥬 시퀀스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마지막 슬로우 모션 시퀀스는 현재 우리들의 시간에 대한 감각의 둔화와 상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혼재되어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공간의 묘사를 통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 관계라는 이 시리즈의 관점을 강조한다. 희생자들이 영혼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트라우마의 재 소환 방식이다. 이러한 에피소드 재현방식은 시청자들을 과거에 자행된 억압과, 숨겨진 진실들을 직시하는 것이자 과거의 끔찍한 폭력을 마주하도록 초대하는 것이고 범죄자들을 마주하고,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의 구성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현재사회를 올바르게 이끈 과거의 사람들의 행위를 기억하게 한다. 세계는 다양하고 여러 일들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콜드 케이스>는 이전의 억압된 지식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 III. <콜드 케이스>의 공식 (formula)과 관습 (convention)

#### 1. 현재와 과거의 연결 공식

<콜드 케이스> 각각의 에피소드는 이 시리즈만의 공식 formula을 충실히 따른다. 과거의 사건의 발생순간으로부터 시작하고 본 수사팀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겨두는 부분까지도 종종 재현한다. 뒤이어 현재로 빠르게 전환되어 현재 상황에서의 새로운 변수 - 시체의 발견, 연관 증거물의 발견, 증인 또는 가족의 방문 - 를 재현한다. 팀의 형사들은 항상 종이 파일박스에 담겨있는 남아있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펜아웃 pan-out으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장면으로 전환한다. 희생자의 친구들, 가족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또는 희생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 형사들과의 인터뷰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 부근의 그들 기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화면은 과거로 플래시 백 flash-back 되어 시청자들이 과거 범행의 순간을 목격하도록 만든다. 이 플래시 백은 캐릭터들의 과거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통해 진행되어 시청자들은 과거의 인물들과 현재 인물들의 증언을 듣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이러한 시리즈의 형사들의 인터뷰는 공식적 formula 시퀀스로 누구도 전체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역사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관점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증인의 대다수는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는 그들의 목소리조차 낼 힘이 없는 변방의 인물들이었지만 결국 이들 침묵의 증인들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형사들과의 모든 인터뷰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해주고 형사들은 그들의 새로운 증언과 남아있는 사건 관련 서류들과의 비교를 통해

1 이러한 주제로 다루어진 <콜드 케이스>의 에피소드들은 “스트레인지 플롯” 이외에도 “톤 Torn” (시즌 4 21화), “롱 블루 라인 Long Blue Line” (시즌 6 22화), “샌드호그 Sandhog”(시즌 4 3화), “윙스 Wings” (시즌6 11화), “팩토리 걸스 Factory Girls” (시즌 2 2화, “WASP” (시즌7 5화), “Famili 8108” (시즌 5 11화), “레드 글레어 Red Glare” (시즌 2 8화), “베스트 프렌드 Best Friends” (시즌 2 22화) “다니엘라 Daniela”(시즌2 3화)등등 다수의 에피소드들이 미국 역사의 인종, 동성애, 다민족, 여성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 과정은 팀 공동의 작업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반복적인 인터뷰를 하며 좀 더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마침내 범인을 확인하게 되고, 그들은 후회의 감정과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당시의 관행적 관습적 사고와 행동을 말한다.

모든 에피소드는 슬로우 모션 몽타주 시퀀스 slow-motion montage sequece로 끝을 맺는데, 사건 당시의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중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사건 당시의 과거 등장인물들과 현재의 인물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현재의 인물들은 젊은 시절의 그들 스스로를 보거나 미처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보게 되고, 범인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걸어 나오고 주인공 러쉬 형사나 현재의 등장인물들은 희생자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이 모습을 바라본다. 역사에서 지워졌던 희생자는 마침내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형사들은 서류가 담긴 박스 옆면에 “종결 CLOSED”이라고 적어 장고에 되돌려 놓는다. 이 몽타주는 상당히 효과적이는데 이유는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피해자의 아픔과 부당한 사회적 환경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을 슬픔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며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 알게 해 준다. 이 몽타주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에 대해 제시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의식과 행동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 2. 과거의 현재화를 위한 관습

시리즈의 관습 convention인 플래시 백 시퀀스는 시청자들을 효과적으로 역사적 순간으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시간적 이동은 패닝paning, 와이프wipe, 페이드fade와 디솔브dissolve와 같은 관습적 카메라의 움직임과 화면전환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화면 왼편으로의 패닝은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전조이고, 카메라가 멈추면 우리는 과거로 이동해 있다. 반대로 오른편으로의 패닝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다. 잠시의 시간이동을 위해서는 밝은 빛의 번쩍임과 사운드 효과를 사용한다. 현재의 늙은 캐릭터의 젊은 시절로의 매치 컷

match-cut이동과 분리 편집 화면과 대사를 통한 시간의 이동 등은 현재와 과거의 연결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두 시간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보여준다.

플래시 백 모드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12]. 첫째, 미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특정 장소, 시간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역사 교육을 시도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젠더, 인종, 계급과 성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그 과정 속에 역사의 중층적 구조가 더 오래된 과거가 과거의 모습을 결정했음을 표현한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구조를 명백하게 보여주며 등장인물들이 당시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교회, 학교, 정부기관(특히 경찰)과 같은 사회적 기구들이 얼마나 억압적인 도구로 기능했는지도 묘사한다. 많은 에피소드들은 부당한 권력의 남용에 저항조차 하지 못한 희생자들과 그들을 도와주려 했던 캐릭터들을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플래시 백은 희생자를 현재의 세계로 불러온다. 마침내 우리는 희생자가 아닌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등장인물을 환영으로나마 보게 된다. 현재 우리의 삶을 만드는데 희생한 그들의 삶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 것이다.

배경음악은 매우 효과적으로 시리즈의 플래시 백 장면의 톤을 유지해 준다. 더하여 주제적으로 연결된 그 시절의 대중음악의 사용은 우리를 어느 특정한 시간에 위치하게 하는데, 이는 세트, 의상, 소품 그리고 여타의 미장센, 필터, 세피아 톤의 화면, 색의 분절의 사용, 또는 흑백필름, 저감도 필름을 사용하며 블리치 blitch 기법 함께 매우 효과적으로 그 시절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 IV. 잊혀진 목소리의 귀환

<콜드 케이스>는 보통사람들의 행동으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주장한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성실함과 용기있는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희생자들은 그들이 틀렸다고 믿는 일들에 대

해 침묵하거나 수동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행동했거나 비인간적이고 사회적, 문화적인 기대를 벗어나는 일들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에피소드 ‘스트레인지 프루트 Strange Fruit’<sup>2</sup>은 1963년 여름을 무대로, <콜드 케이스>의 전형적인 문제제기를 보여준다.

‘스트레인지 프루트’은 미시시피에서 필라델피아로 막이사온 전형적인 중산층 흑인 가정의 십대 소년 제크 윌리엄스의 이야기이다. 흑백 화면의 오프닝은 흑인 여성 4인조 그룹 쉬폰 (Chiffones)<sup>3</sup>의 어느 멋진 날 (One Fine Day)<sup>4</sup>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몇몇 백인들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 준비를 위해 성조기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제크와 그의 부모가 함께 흰색 나무 벽을 따라 걸으며 알라바마 버밍햄에서 경찰이 흑인 소년 시위자에게 소방호스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sup>5</sup>. 제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행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거라 이야기하지만, 엔지니어이자 참전 군인인 아빠는 흑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은 행진이 아니라 ‘성실, 근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제크는 이에 대해 “우리가 중요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한다 Our lives begin to end the day we become silent about things that matter”라는 킹 목사의 연설을 인용한다. 윌리엄스 가족의 새로운 이웃들은 걸으로는 친절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더구나 윌리엄스씨가 동네 남자들의 대부분이 다니고 있는 공장의 상사로 온 것을 알게되자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윌리엄스 가족과 가급적 멀리 떨어지게 한다. 윌리엄스 가족의 배경으로 성조기 무늬가 가득한 화면은 미국 사회의 정치적 이상과 현실이 간극을 보여준다.

흑백 플래시백 모드 화면은 거주자 대부분이 흑인인 가난한 동네에서 12세 소년 월 제프리 (강력만 팀의 배테랑 흑인형사)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가로지르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거리는 카드게임 중인 남성들과 조그만 TV로 마틴 킹 목사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보인다. 소년들이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죽은 제크를 발견하다. 플래시 포워드로 현실로 돌아온 화면은 월과 러쉬가 여전히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일한 장소에 서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월은 이제는 쓰레기만 가득한 아무도 놀지 않는 놀이터의 낙서만 가득한 입구에 서있다. 그는 러쉬에게 이곳에서 제크를 발견했고 사람들이 매년 꽃을 갖다 놓으며 그를 기억한다고 말하자, 러쉬는 “사람들은 잊었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월은 “나는 한번도 잊은 적 없다”라고 대답한다.

이 오프닝 신은 필라델피아 지역이 어떻게 인종과 계급차별을 하고 있는지, 북부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흑인들에게 차별을 가하는지를 보여준다. 제크의 아버지는 “북부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에밋 킬 Emmett Tills<sup>6</sup>을 직시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남부의 전유물처럼 취급하지만 북부 역시도 그들만의 차별방식이 존재한다. 특히 흑인이 상사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며 제크의 주위를 환기시킨다.

다시 플래시백으로 돌아가 제크는 그의 아버지 직장

2 “스트레인지 프루트”은 시즌 2의 19화이다. 비나 수드 Veena Sud 각본과 패리스 바클레이 Paris Barclay 연출로 2005년 4월 3일 첫 방송되었다. 제목은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 스트레인지 프루트에서 차용한 것으로 제목에서부터 이 에피소드가 흑인 인권과 관련되어있음을 분명하게 한다.

3 쉬폰은 1960년 초반 미국에서 활약한 여러 인기 있는 걸 그룹 중의 하나로(one of the top girl groups), 당시의 걸 그룹의 사운드의 전형인 뛰어난 하모니와 고음의 조화를 보여주는 그룹의 하나이다. One fine day는 그들의 대표 히트 곡 중의 하나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The\\_Chiffones](https://en.wikipedia.org/wiki/The_Chiffones)

4 60년대 초반 최고의 인기 작곡자인 케리 고핀 Gerry Goffin과 캐롤 킹 Carole King이 제작한 1963년 여름의 히트곡으로 빌보드 Hot 100의 #5, R&B 차트의 #6에 랭크되었다. 쉬폰의 오리지널 버전 이외에도 다수의 가수들이 부른 버전이 있고, 롤링 스톤 Rolling Stone Magazine의 위대한 500곡(#460)에 포함되어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One\\_Fine\\_Day\\_\(song\)](https://en.wikipedia.org/wiki/One_Fine_Day_(song))

5 1963년 여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미국 앨라바마주의 버밍햄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흑인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흑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경찰들이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견과 소방호스를 사용하는 장면이 TV를 통해 미국전역에 중계되었다.

6 에밋 킬 Emmett Tills은 1955년 미시시피의 친척을 방문했다 상점의 백인여성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그녀의 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강에 버려진 시카고 출신의 14세 소년이다. 죽음을 당한 에밋의 시신은 고향 시카고로 운반되었고, 잔인하게 살해된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에밋을 시신이 들어다보이는 열린 관(opew-casket)으로 운구하게 된다. 이 모습이 미국전역의 미디어에 보도됨으로써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촉매제의 하나로 기능하게 된다. 에밋을 살해한 브라이언트와 밀리엄은 1955년 유죄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정확하게 에밋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인다.

[https://en.wikipedia.org/wiki/Emmett\\_Till#Trial](https://en.wikipedia.org/wiki/Emmett_Till#Trial)

에서 어떻게 일상적으로 흑인차별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는데 백인 부하직원들은 그들의 흑인 보스의 지시를 어기고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되풀이 한다. 체크 역시도 그의 집 마당에 남부연합기를 꽂아두고 성조기를 훑쳐가는 이웃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쫓아간다. 심지어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이미 인종차별을 배워서 “흑인들은 매우 종교적이어서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며 흑인 가정 앞의 십자가를 불태우는 의미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sup>7</sup>. 체크는 그 중 가장 어린 아이인, 마을 은행가의 딸 샤롯 존스를 쫓아가 국기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다가 그 곳에서 샤롯의 엄마와 삼촌을 만나는데, 삼촌은 체크가 그 가족의 하녀 마틸다와 섹스를 위해 집까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엄마 주디스는 체크가 샤롯을 강간하려 집까지 쫓아 온 것으로 생각한다. 전형적인 인종차별적인 편견으로 흑인 남성은 백인 여성과 소녀를 강간하려는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체크는 그 과정에서 체스 판의 말들을 움직이고 주디스는 체크가 뛰어난 체스 플레이어임을 알아본다.

주디스는 그녀의 가정에서 “멍청한 가정주부”로 취급당하고 있었지만, 체스를 사랑하는 그녀의 눈에 들어온 체크의 말의 사용은 그들이 진짜 친구가 되는 계기를 제공 하였다. 그들이 매일 벌이는 게임은 마틸다와 샤롯이 지켜보았고 차별이 공공연한 사회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었고, 백인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결국 그들은 공원에서 체스 게임을 벌이지만 체크의 친구 클라이드는 그들의 우정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한다. 클라이드는 말콤 엑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말하고 백인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였다. 이 플래시 백 장면에서 마틸다가 헨리 존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포함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백인 농장주들의 흑인 여성 노예에 대한 학대와 가정 내에서 “귀머거리, 장님, 병어리”로 취급당한 백인 여성들에 대한 학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sup>7</sup> 흑인들을 목매달고, 많은 이들이 물려 함께 찍은 몇몇 사진들을 보면, 나무에 목 매달린 흑인 주위에 백인 성인들뿐 아니라 5,6세의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의 모습도 확인 할 수 있다.

<http://spartacus-educational.com/USACstacy.jpg>

형사들은 창고에서 마틸다에 대한 강간 보고서를 발견하고 당시 리포트를 작성한 린다 오히라를 만난다. 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린다는 1963년, 여성이 마음을 바꾸면 사건이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답하며 마틸다와 체크가 얼마나 용기를 내어 신고 했는지를 말한다. 그녀는 “나는 그들을 믿는 단 한명이었다”라고 답한다. 플래시 백 장면에서 백인 남성 경찰들이 마틸다와 체크를 비롯하며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강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자 체크는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곧바로 경찰 모욕죄로 체포된다. 러쉬는 “왜 그런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고 린다는 “누구에게? 경찰에게?”라고 답한다.

이 플래시 백은 힘없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역사에서 밀려나고 사라지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권력이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그들의 나쁜 것들을 보호하는지. 경찰들은 마틸다의 신고를 믿지 않았고, 체크의 증언 역시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린다에게 이 케이스를 없애라고 명령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범죄를 다른 흑인들에게 전가하고 기소한다. 헨리의 동생 빌리는 후에 “흑인들이 이웃으로 이사 와서는 일자리를 빼앗고, 여자도 빼앗고..”라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 버전의 “진실”을 만들게 된다.

마틸다는 뒤이어 도착한 주디스 존스가 체크와는 친구가 아니라고 증언하도록 강요당했음을 말하게 된다. 주디스는 마틸다를 해고하고 체크에게 가급적 빨리 마을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주디스는 체크에게 “경찰서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없느냐? 제발 조용히 살라”고 말하지만, 체크는 다시 한 번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킹 목사의 워싱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떠날 것임을 말한다. 체크의 이러한 결심은 사회적 운동이 선택적 현상학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진실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과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에 주디스는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여러 협박을 당했고,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그녀가 체크에게 워싱턴 행진에 참여하라고 부추겼고, 체크



의 행동과 생각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현실적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다. 1960년대의 법체계와 관습상 그녀는 남편의 온당치 못한 요구와 협박을 감당할 수 없었다.

마지막 플래시백은 사룻 존스의 증언으로 이어지는데, 아빠 헨리에 의해 함께 제크를 추격하는 차에 타게 되었음을 말한다. 헨리, 삼촌 빌리 그리고 2명의 백인남성은 마침내 워싱턴에 가기위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던 제크를 발견한 그들은 제크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입을 다물게 한다. 빌리는 “아무도 너의 비명을 듣지 못할거야. 특히 너의 아빠도..” 그러자 제크는 “당신의 상사?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마틸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당신들은 나를 막지 못해”라며 그들을 비웃는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는 킹 목사의 유명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가 연설이 흘러나온다. 빌리와 다른 두명은 제크를 나무에 목매달아 살해한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인 마틸다를 강간한 헨리는 사룻의 눈을 가리며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사룻은 목매달린 제크의 모습을 보게된다. 곧 이어 경련을 일으키는 제크의 다리와 마치 짐 크로우 법<sup>8</sup> 시대 흑인을 나무에 매달 것 을 연상시키는 룡 샷으로 제크가 나무에 매달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무서운 시퀀스는 미국 역사에서 미국 흑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정의실현을 억압했던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성차별주의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만큼 죄의식없이 폭력을 사용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백인 어린이들이 어떻게 폭력에 대해 눈감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침묵하게 되는지도 보게 된 것이다. 제크를 감동시킨 킹 목사의 감동적인 비전과 미국 인종차별주의의 현실이 적나라하고 아프게 비교된다. 마지막 슬로우 모션 몽타쥬 시퀀스는 니나 사이먼 Nina Simone의 “Strange Fruit”<sup>9</sup>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제

크의 부모, 마틸다, 사룻, 주디스 존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간다. 젊은 캐릭터와 현재의 늙은 캐릭터들이 번갈아 보이며 <콜드 케이스> 특유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느끼게 한다. 과거의 인물들이 현재까지 살아오며 그대로 남아있고, 숨죽인 목소리들이 마침내 들리게 된 것이다. 다음 장면에서 제프리가 폐쇄된 놀이터 앞에 다시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어린 시절의 그와 지금의 모습이 번갈아 엮음을 띠며 사라지는 제크의 영혼과 시선을 교환한다. 제프리가 42년간 잊지않고 있던 제크를 위해 꽃을 놓는다. 그와 그의 팀원들은 단순히 인종적 부채감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활동의 진실을 찾는 것이다.

다른 여타의 에피소드들의 주인공들처럼 제크는 용기있고, 신념 가득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말해야 할 중요한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에피소드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역사의 순간에 대한 “보철적 기억”을 제공하고 오늘날 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나 과거의 거의 불가능한 순간에도 사회의 정의를 지키려 노력한 사람들을 알게 해준다. 현재도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여타의 불공평한 관행들에 대해 저항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독려한다.

## V. 응답하라 2015

<콜드 케이스>는 1963년 이래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동력이 되었으나 역사에서 밀려나고, 잊혀진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청자들에게 상기시켜준다. 이는 노동운동, 페미니즘, 시민운동, 동성애 권리 등, 수 많은 사회운동을 통해 가능했고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는 보통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행동과 변화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리즈는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혐오, 홈리스, 가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다루어 왔다. 또한 그들의 주제를 통해 희망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다룬 것이다. 에버리 고든 Avery Gordon은 픽션의 진실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접

8 짐 크로우 법은 1881년 테네시주에서 최초로 통과시킨 흑백차별 법으로써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법이 위법임을 서명할때까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을 지탱해주던 법적근거로 남아있었다.

9 “스트레인지 프루트 Strange Fruit”은 1939년 빌리 홀리데이 Billy Holiday의 오리지널 버전의 곡으로써 1964년 또 다른 흑인 여성이자 인권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니나 사이먼이 부른 노래이다. 곡에서 말하는 “수상한 과일”은 백인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나무에 목매달린 흑인들의 사체를 지칭한다.

근할 필요없는 사회과학적 방법의 경험 형식을 탐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녀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변화시키고, 알게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삶과 죽음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이루는 과거의 영혼들로부터 보고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영혼들은 주류와 "객관적" 인식론에 의해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비가시적으로 만들어 지는 우리의 경험의 형식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키고 역사가들이 작업해서 재검정해야하는 숨겨진 과거(그리고 가능성들)을 되살려서 우리가 볼 수 있게하고 현재와 미래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그녀는 과거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되는 것은 범죄자들의 과거 그들의 범죄에 대해 단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활동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13].

형사들은 미국 역사의 영혼들을 추적하고, 지배형식의 지식과 권력에 의해 보이지 않게 가려지고 말할 수 없게 강요당한 삶과 경험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재구성한다. 제프리는 제크 윌리엄스의 영혼을 만나고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경찰로서 발견한다. 그들은 좀 더 크고 복잡한 미국 인종차별의 억압과 폭력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인종차별주의"의 추상적 모습이 아니라 특정 인종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세상 안에서 어떻게 개인의 삶(그리고 죽음)이 묘사되는지 보여준다. 시리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기억에 대한 "보철적 기억"을 호명하여 현재의 행동으로 새롭고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동시에 주류의 정치적, 문화적 생각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전복을 주장하는 대중문화의 노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정치적 각성의 실천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가 사회적 변화와 성장의 밑거름이자 동력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 참 고 문 헌

[1] 로젠스톤, 로버트 A. 김지혜 역, *영화, 역사, 소나*

무, p.14, 2002.

- [2] 이승환,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한국사회의 호명," *영화연구*, 제27호, p.201, 2005.
- [3] Tim Brooks and Earle Marsh, *The Complete Directory to Prime Time Network and Cable Shows, 1946 - Present*, 9th ed., New York: Ballantine Books, p.270, 2007.
- [4] [https://en.wikipedia.org/wiki/Cold\\_Case](https://en.wikipedia.org/wiki/Cold_Case)
- [5] Tatiana Morales, "The Ice Queen of Cold Case," *cbsnews.com*, CBS News Online, 2009.02.11., Web., 2013.09.01.
- [6] Margaret McFadden, "people Shouldn't Be Forgotten: Cold Case's Pursit of History's Ghosts," *Journal of Popular Film & Television*, Vol.42, Issue.3, pp.140-143, 2014.
- [7] Daniel Marcus, *Happy Days and Wonder Years: The Fifties and Sixties in Contemporary Cultural Politics*, New Brunswick, NJ: Rutgers UP, 2004.
- [8] Wendy Brown, *Politics Out of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P, pp.3-17, 2002.
- [9] Alison Landsberg, *Transformation of American Remembrance in the Age of Mass Culture*, New York: Columbia UP, pp.2-24, 2004.
- [10] [https://en.wikipedia.org/wiki/Cold\\_Case](https://en.wikipedia.org/wiki/Cold_Case)
- [11] Margaret McFadden, "people Shouldn't Be Forgotten: Cold Case's Pursit of History's Ghosts," *Journal of Popular Film & Television*, Vol.42, Issue.3, p.143, 2014.
- [12] Margaret McFadden, "people Shouldn't Be Forgotten: Cold Case's Pursit of History's Ghosts," *Journal of Popular Film & Television*, Vol.42, Issue.3, p.148, 2014.
- [13] Avery Gordon, *Ghostly Matters: Haunting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pp.7-23, p.58, p.79, 1997.

저 자 소 개

이 승 환(Seung hwan,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사)
- 1996년 1월 : 뉴욕대학교 Media Ecology(M. A)
- 2003년 2월 :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Ph. D)
- 2004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TV영화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대중영화, 문화연구, 대중문화, K-Pop Culture